

봄호 2008. 5 No.4

동물/보존

함께 나누는 삶

반려동물문화캠페인 _ 4 애완동물이 아니라 반려동물입니다 | 견생역전 밤돌이 | 기획리포트 _ 3 길고양이 TNR 정책에 대한 바람
INTERVIEW 강은업 카라(KARA) 명예대표 | Animal Watch 소 싸움 | 세상읽기 '두려운 동물들의 역습'
현장에서 '세계 무역과 농장동물복지' 컨퍼런스 참가기 | 2008 연례보고 _ 동물자유연대/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협회

CONTENTS



- 1 **여는 글** | 인간이 중요해요, 동물이 중요해요?
- 3 반려동물문화캠페인_4 | 애완(愛玩)동물이 아니라 반려(伴侶)동물입니다
- 4 **견생역전** | 입양간 밤돌이에게 소식이 왔어요!
- 6 **동물보호법 FAQ** | 반려동물 판매업에 대한 소비자 분쟁 해결
- 7 **입양해주세요** | 듄직하고 충성스런 발바리계의 보스!
- 8 **기획리포트_3** | 길고양이 TNR 정책에 대한 바람
- 10 **Animal Photography** | 사진으로 보는 소싸움
- 12 **Animal Watch** | 소싸움, 지역 축제가 아니라 지역 사행산업 조장이다
- 14 **세상읽기** | 두려운 동물들의 역습
- 16 **INTERVIEW** | 강은업 카라(KARA) 명예대표
- 18 **현장에서** | '세계 무역과 농장동물복지' 컨퍼런스 참가기
- 20 **활동소식** | 2008년 12월 ~ 2009년 4월
- 22 **Live on vegetables** | 자글자글~ 야채 바비큐예요!
- 23 **포토행당뉴스** / 편집후기
- 부록 2008 연례보고 동물자유연대 ·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협회



인간이 중요해요, 동물이 중요해요?

조희경 | 대표

제가 동물보호 활동을 하면서 외부로부터 가장 많이 질문 받는 내용은 '어떻게 해서 이 일을 하게 되었나요?' 와 '동물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입니다.

제가 어떤 계기와 경위로 해서 이 활동을 하게 됐는지는 후에 기회가 있을 때에 말하기로 하고요. 이번 호에는 후자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보통 동물 보호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만 이를 좀 더 구체화된 개념으로 분류하면 동물 권리와 동물복지로 나뉘어 집니다. 동물권이란 인간과 동물을 수평적 관계로 보고 인간이 동물을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요약할 수 있고, 동물복지는 인간과 동물을 수직적 관계로 보고 인간이 동물을 이용하되 동물이 살고 죽는 모든 과정에서 동물들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가해지지 않는 것을 보장해주려 하는 것이라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복지의 개념에서 각각의 입장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물의 복지만 보장해주면 인간이 동물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인간이 동물을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써 동물 복지를 수용하며 동물 이용을 최소화하라고 요구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는 후자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동물을 비교해 누가 더 중요하느냐는 질문을 던지는 분들께 과연 동물복지에 대한 개념 설명만으로 이해를 도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이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함께 나누는 삶'을 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개와 고양이 등 인간 생활권에서 살아가는 동물 외에 이 지구상에는 약 590억 마리에 달하는 농장동물(가축)들과 약 5억 마리가 넘는 실험동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가혹한 환경에서 살고 있고 피할 수도 있는 고통이 가해진 채 서서히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티끌만큼의 정당성도 없이 오락으로 희생되는 무수한 동물들, 노역하는 동물들, 인간에 의해 구속되어 있는 야생동물 등 최소한 600억이 훨씬 넘는 수의 동물들이 인위적인 틀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약 66억 명인데 무려 10배가 넘는 동물들이 인간에 의해 태어나고 살다가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과연 동물을 이렇게 이용하는 데에 그 어떤 책임이나 윤리적 고려는 필요 없는 것일까요?

인간이 동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한 시점은 18세기부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동물보호 담론은 서구 사회에서 시작하며 주도해왔기 때문에 이 관점은 서구의 사회의 인식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생명체에 대한 윤리적 고려가 서구 사회만의 것은 아니지요. 18세기 이전에는 인간과 동물 사이에서는 차이점만 강조했습니다. 인간에게 언어 능력과 의식, 영혼이 있기에 우월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동물은 도구적 관점으로만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로는 인간과 동물 사이에 유사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인간이나 동물 모두는 살아가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고, 감성이 있으며 고통을 느끼고 경험한다는 것이지요. 이즈음에 제레미 벤담은 '사고할 수 있는가, 말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가 중요한 관점임'을 주장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지능 지수가 낮고 종이 다를지라도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를 인간이 이용하는 데에는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에 대한 책임의 의무가 요구되기 시작합니다. 고통을 최소화시켜야 하며, 될 수 있는 한 적절한 동물 복지 상태를 유지시켜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인간이 동물을 사육하고 이용하는 데에 따른 기초적인 도덕적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인간이 식량과 기초 생활 용품을 공급받기 위한 수렵만 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는 동물보호, 동물복지라는 용어조차도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야생의 동물들이 생존을 위해 먹을 것을 찾아 사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지요. 하지만 인간 사회는 계속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동물을 다양하게 이용해왔습니다. 식량, 노역, 의류, 오락, 과학 등등 우리 주변에서 동물이 이용되지 않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며 이것은 점차 대량화·산업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대 사회의 특징은 수요에 의해 동물이 이용되는 것이 아닌 공급이 수요를 주도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600억 마리가 넘는 동물들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현실로 볼 때 과연 인간은 '동물은 한낱 도구야'라고만 하는 것이 과연 이성이 있으며 윤리적 사회를 지향하는 인간의 태도일까요?

인간은 과연 동물을 이렇게 이용하는 데에 그 어떤 책임이나 윤리적 고려는 필요 없는 것일까요?



동물 복지는 인간이 동물과 동등한 위치에 있거나, 인간은 무시한 채 동물만 감싸겠다는 것이 아닌 동물을 이용하는 인간이 인간됨으로써 동물을 배려하고자 하는 실천들입니다.

당장에 쉽게 행하지는 않더라도 사육하는 동물의 방을 조금 더 넓혀주고 쾌적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며, 비록 도살을 하더라도 기절 상태에 이르게 한 후 죽임을 가하고, 인류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고통이 가해지고 죽임을 당하는 동물들은 과연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것이 있는가 검토하며 그 수를 줄여나가고자 하는 노력들 등은, 인간보다 동물이 더 중요해서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선한 감정을 상치받지 않고 보다 높은 도덕성을 정립해나가기 위한 것일 겁니다. ☹

애완 愛玩 동물이 아니라 반려 伴侶 동물입니다.

우리는 흔히 집에서 기르는 동물을 애완(愛玩)동물, 혹은 반려(伴侶)동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 문제의식 없이 함께 쓰는 이 말의 속뜻을 살펴보면 이 두 단어는 같은 것을 가리키면서 큰 차이가 있다.

애완(愛玩)이라는 말은 사랑할 '애', 희롱할 '완'으로 사랑해서 가까이 두고 보거나 즐기는 것이라는 의미로 조금 과장되게 생각해 보면 생명의 고귀함을 생각지 않은, 단순히 인간의 만족을 위한 장난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려(伴侶)는 짝 '반', 짝 '려', 짝이 되는 친구라는 뜻으로 1983년 오스트리아에서 개최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Companion Animal'로 부르도록 제안된 것이 시초가 돼 사람과 더불어 서로 의지하고 동반하는 동물을 뜻하는 것으로 지어졌다.

이처럼 애완동물과 반려동물이라는 말은 서로 생명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이 다릅니다. 장난감과 친구는 같이 놀더라도 대하는 깊이나 무게에선 비교하기도 힘들겠죠.

여러분의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를 그저 귀여운 한때 잠깐 가지고 놀다가 귀찮아지면 쉽게 버려도 되는 장난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라서 안 예쁘다고, 아파서 돈이 많이 든다고, 잡종이라 싫다고 하는 등의 이유로 동물을 버리고 학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동물을 그저 싫증나면 버리는 장난감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동물을 인간과 똑같이 기쁨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생명체로, 인간과 교감을 나누고 서로 의지하는 친구가 될 수 있는 한 생명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의 반려동물이면서 또 가족이라고도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은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많은 고민거리가 생길 것입니다. 병에 걸리면 병원비가 들게 되고, 반려동물로 인해 이웃과 마찰도 생길 수 있으며, 혼자 사는 분들은 마음 놓고 집을 비우기도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면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 달라지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어떻게든 헤쳐 나갈 의지가 생길 것입니다.

내가 기르는 동물을 장난감이 아닌 나의 가족으로 생각하며, 애완(愛玩)동물이 아닌 반려(伴侶)동물로 불러주시시오. ☺



입양간 밤돌이에게 소식이 왔어요!



2007년 초가을,

우리는 인간이라는 게 너무 부끄러웠던... 인간의 탈을 쓰고 이토록 잔인한 짓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처참했던 모습의 밤돌이를 만났습니다. 도저히 교통사고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예리하게 패여 뼈가 그대로 드러난 앞다리와 나머지 다리마저 살이 너덜너덜 붙어 있었다. 화상을 입은 것 같은 이마의 상처까지...



▲ 구조 당시 밤돌이의 처참한 모습



▲ 수술 후에도 순한 표정의 밤돌이 모습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라면 쇼크로 기절을 벌써 했을 것 같은, 살아있다는 게 기적에 가까운 만큼 처참한 모습의 밤돌이를 만났습니다. 밤돌이를 통해 이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동물에 대한 멸시와 학대를 보았고, 반대로 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 많은 분들의 눈물겨운 사랑도 보았습니다.



◀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밤돌이에게 찬사같은 열매가 되어준 진희씨 덕분에 밤돌이는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바뀌었습니다.



밤돌이는 3차에 걸친 대수술을 이겨냈지만 구조 당시 뼈가 거의 드러난 앞다리는 결국 절단을 했고, 나머지 다리도 피부 이식을 해야 할 만큼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면서 새살이 돋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던 어느 날, 밤돌이를 보듬어 주시겠다는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퇴원을 해도 계속 보살펴 줘야 하는 상태고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을 밤돌이가 행당동의 난리법석인 분위기에 적응할 수 있을까 내심 걱정을 하고 있던 차에 단비처럼 등장한 진희 씨. 밤돌이는 퇴원과 동시에 따뜻한 진희 씨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밤돌이에게는 여러 번의 고비가 찾아왔지만 진희 씨의 정성과 밤돌이를 걱정해 주던 많은 분들의 열려 속에 거뜬히 이겨내고 이제는 어리광쟁이에 다이어트가 필요한 어느 평범한 반려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기적에 가까웠던 지난날을 뒤로 하고 이제 편안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는 밤돌 군과 든든한 울타리 진희 씨의 행복한 일상을 살짝 엿볼까요? ☺

이런 엄마도 있고
아프지도 않아요!
정말 행복해요!



반려동물 판매업에 대한 소비자 분쟁 해결



동물판매업자들이 반려견 분양 시 동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는 피해 보상을 못해 준다는 허위 사실로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의 내용은 소비자가 동물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 사실에 대해 보상해야 하는 기준이므로 참고하면 좋다.

분쟁이 해결되기 어려울 때에는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고 해결 방안을 안내 받으면 되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소중한 반려동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줘야 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관할 시·군청에 동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행위를 한 판매업자는 불법행위로 간주하므로 이를 잘 살펴보고 분양을 받아야 한다. 또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한 판매업자는 관할경찰서에 고발해도 된다. 판매업 미등록 판매 시 동물보호법 제15조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동법 제25조에 의거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과 동물판매업 신고는 별개의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이 판매업 신고라고 허위 주장하는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㉔

반려동물 판매업에 대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품종	피해 유형	보상 기준	비고
반려동물 판매업 (개, 고양이에 한함)	구입 후 15일 이후 이내 폐사 시	동종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판매업자는 반려동물을 판매할 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 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① 분양업자의 이름과 주소 ② 반려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병 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해 회복시킨 후 소비자에게 인도한다.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 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동종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을 받을 수 있다.	③ 혈통, 성, 색상과 판매 당시의 특징 사항 ④ 면역 및 기생충 접종 기록 ⑤ 수의사의 치료 기록 및 약물 투여 기록 등
	계약서 미교부시	계약 해제, 단 구입 후 24시간 이내에만 가능하다.	⑥ 판매 당시의 건강 상태 ⑦ 구입 시 구입 금액과 날짜



* 동물보호단체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을 입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원하는 반려동물을 식구로 맞이하는 동시에 한 생명을 구했다는 뿌듯한 자부심도 느낄 수 있습니다!

입양 해 주 세 요 ■

듬직하고
충성스런
발바리계의
보스!

순돌 영감



오만방자한 수컷들을 제압하며 어린 암컷들을 보호해 주는 진정한 싸나이! 그 이름 순돌이, 하지만 이런 씩씩한 순돌이도 한없이 수줍은 소년이 될 때가 있으니 바로 예쁜 누나들 품 속이랍니다. 오늘도 서열 정리에 바쁜 순돌이지만 다정한 눈길 한 번에 만사 제치고 달려오는 건 그만큼 정이 그리운 거겠죠, 행당동 생활도 어느덧 6년이 넘어가는 입양 복 없는 순돌이, 부대끼고 치이고 싸우기도 하면서 6년을 행당동에서 보냈습니다. 그동안 동고동락하던 아이들이 하나 둘씩 새로운 가정을 찾아 떠나는 것을 수도 없이 보며 눈물을 삼켜야 했던 인고의 시간들. 급기야 순돌이를 보러 왔다가 다른 녀석들이 짚을 당하는 수모도 여러 차례, 정말로 우리 순돌이의 진가를 너무들 몰라줍니다!

처음엔 조금 낯가림도 하지만 어느새 한없이 순하고 고운 눈망울로 우리를 올려다봅니다. 다정한 손길 한 번에 온 몸을 맡긴 채 지금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어린 새끼양이 됩니다. 한창 왕성하고 호기심 많은 나이에 행당동으로 온 순돌이는 이제 작은 일 따위에는 무덤덤한 어찌면 그런 일 따윈 신경도 써주지 않는 보호소 생활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만 챙겨주고 나만 사랑해주는 일 같은 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난히 추위를 많이 타서 안쓰러운 녀석입니다. 쓸데없이 짖는 다든지 물어뜯는 행동도 없습니다. 사람 옆에서 암전히 기다릴 줄 아는 에티켓도 있습니다. 단 발바리종의 특성상 털이 많이 빠지는 단점이 있지만 정기적인 미용으로 요것 따위는 문제도 없습니다. 우리 순돌이 좀 봐주세요. 네! ㄹ



길고양이 TNR 정책에 대한 바람

서울시의 TNR 정책 시행 1년 전 동물자유연대는 TNR을 둘러싼 여러 논쟁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올바른 TNR 시행의 방향 제시를 위해 이 정책 시행에 참여한 동물병원과 업체를 직접 방문했다. 먼저 지난해 1차적으로 9개의 동물병원을 방문한 데 이어 2009년 1월과 2월에 걸쳐 8개의 동물병원과 동물구조관리협회(이하 '동구협')를 찾았다.

서울시는 <도심 속 길고양이 관리지침>을 작성하고 직접 각 자치구에 배포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하지만 TNR라는 정책은 역사가 짧고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소 일방적으로 도입한 경향이 강해 실질적으로 이 정책이 뿌리 내리기에는 혼란스러운 점이 많았다.

논쟁점

국내에서는 고양이, 특히 길고양이의 생태를 파악하고 연구한 성과가 전무한 만큼 고양이를 다루고 구조, 포획, 보호하는 데 참여하는 주체들은 다소 주관적인 경험과 판단에 의해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각 자 서울시에서 마련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시선은 매우 다를 수밖에 없다.

포획된 고양이의 수술 후 제자리로 방사하는 원칙은 지켜지는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포획자와 방사자가 바뀌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포획-재방사의 정확한 원칙이 지켜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포획한 이후 수술, 재방사까지 철저한 확인이 어려워 많은 수의 고양이들을 포획해 다시 방사하는 시기에 대한 원칙이 얼마나 잘 지켜질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를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을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확인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더욱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끌 필요가 있다.

수술 후 며칠 안에 재방사 예외 하는가

서울시 지침은 '시술한 수의사가 회복 결과를 면밀히 판단해 방사 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수의사의 경험과 판단, 그리고 고양이의 건강 상태에 따라 수컷의 경우 최소 1일에서 최대 7일, 암컷의 경우 최소 2일에서 7일 정도 이후 재방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길고양이의 경우 집고양이와 야생고양이의 중간 정도 습성을 가지고 있고 사람의 친화 정도에 따라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야생의 습성이 많은 고양이일수록 포획된 이후 보호기간이 오래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심각한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TNR 시행의 초기에는 길고양이의 습성이 알려지지 않아 빠른 방사가 비인도적인 행위인 것처럼 생각되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길고양이들이 불쌍해 보인다는 단지 감정적인 이유만으로 오랜 기간 보호한다면 무리가 되기도 한다. 8주 이하의 새끼고양이 혹은 성묘라도 가출한 고양이 외에는 무리한 입양이나 오랜 보호기간을 고집하면 안 된다.

TNR은 과연 필요한가

TNR을 둘러싼 논쟁이 별다른 정리 없이 산발적으로 일어나면서 TNR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측도 있다. 길고양이들은 불결하고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실제로 수명이 길지 않으므로 개체수가 계속 늘다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길고양이들은 먹이를 구하려고 멀리까지 이동하고 수컷인 경우 번식을 위해 다른 영역까지도 침범해 일정한 지역에서도 실제보다

더 많은 고양이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원인이 무엇인지와 상관없이 민원은 발생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만큼 현재 처한 현실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미국이나 실패한 싱가포르의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서울시의 TNR 시행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는 TNR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산은 얼마나 드나

현재 각 구는 마리당 10만원가량의 지원금을 해당업체와 동물병원에 지급하고 있다. 이 중 6만원가량은 수술과 치료 등에 들어가고 나머지 4만원은 포획, 방사하는 데 사용된다(동구협과 계약을 맺은 경우에 해당한다). 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평균 마리당 10만원가량 드는 예산은 고양이들의 복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한편 이를 시행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재료 비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TNR 시행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예산으로 모두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동물단체, 자원활동가 무엇보다 동물을 다루는 수의사와 전문가들의 자발적인 사회 참여 역할도 필요하다.

일원화된 시스템 확보

TNR의 방법은 포획과 방사, 수술까지 직접 수의사들이 담당하는 경우 수의사들은 수의학적 영역인 수술만 하고 기타 업체나 개인 등에 맡겨 포획, 방사하는 경우 그리고 기존에 유기동물 위탁을 맡아오던 동구협에 위탁하는 세 가지의 경우가 있다. 그런데 수의사들이 TNR을 맡게 되는 경우 전문 포획 인원이 부족한 관계로 큰 곤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포획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를 선정해 위탁을 주는데 이런 경우 포획·수술·방사가 각각 다른 영역에서 이뤄져 전체적인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TNR이 장기적으로 안정화 되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포획하고 방사 업무를 담당할 사람들을 교육해 양성하고 포획·수술·방사 업무를 일원화해 전체

적인 업무 파악이 손쉽게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홍보와 대외, 협조

TNR 시행은 한 주체가 실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 모니터링을 통해 포획 시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고, 이런 작업을 위해서도 각 지역에서 고양이를 돌보는 사람들의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고양이 관련 단체들은 단순히 고양이 밥 주는 사람에서 고양이 돌보는 사람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고양이는 편견과 오해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는 만큼 밥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많은 수의사, 포획업체 직원들은 민원인이 TNR에 대해 이해하고 협조해줄 필요가 절실하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대주민 홍보는 필수적이며, 정부는 많은 분야의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시행하고 이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할 의무가 있다.

TNR가 실시된 지 1년, TNR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말한다. “제대로 이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TNR가 일방적인 포획과 안락사가 동물 복지적 측면과 실질적인 개체 수 조절에 실패했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만큼 TNR 시행에서 동물보호 단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향후 길고양이와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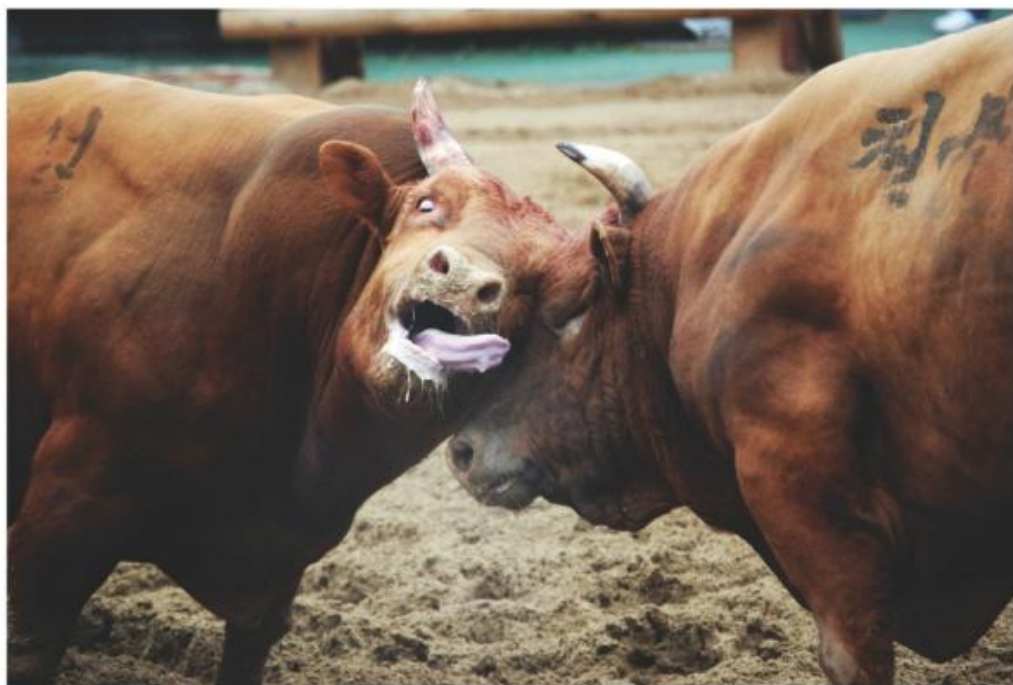
▲ 소 2마리가 싸움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대기 중이다.
이 경기는 40여 분간 지속되었다.

사진으로 보는 소싸움

대개는 '소싸움'하면 정교한 칼로 소를 죽이는 과정을 연상하게 하는 스페인 투우를 대표적으로 꼽는다. 문제는 이 스페인 투우와 우리나라의 소싸움을 비교하며 우리의 소싸움은 동물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우리 사회의 동물학대 불감증 현상이다. 동물싸움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은 동물이 죽고 사는 것 뿐만 아니라 동물에게 가해지는 스트레스와 육체적 고통이다.

소싸움은 800kg 안팎 또는 1,000kg이 넘는 거대한 소의 몸에서 발산되는 온 힘이 머리에 집중되어 서로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 과정에서 머리가 짓이겨지며 선혈이 낭자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것은 토너먼트 싸움 방식에서 상위로 올라갈 수록 심하게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을 두고 '소가 서로 겨루다가 상대가 안될 것 같으면 뒤돌아서 도망가면 싸움은 끝난다. 때문에 동물학대가 아니다.'라고 단순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일까? ❷

▶ 잡전을 팔았던 소 두 마리.
젓이겨진 이마에는 선혈이 남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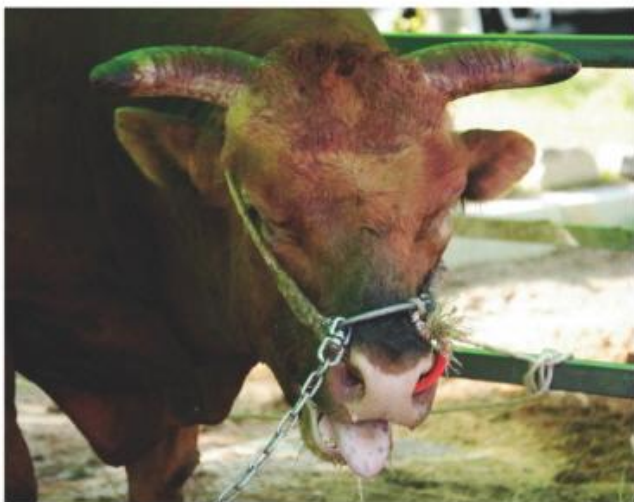
▲ 이 소들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인가?



▲ 경기로 인하여 생긴 상처를 대충 동여매어 놓았다



▲ 피악별에 물도 없이 2시간 이상 방치되어 있던 소.



전 경 옥 | 진락기획팀장

소싸움, 지역 축제가 아니라 지역 사행산업 조장이다

소싸움으로 가장 유명한 청도군은 1월 상설 경기장을 완공한 가운데 3월 소싸움 축제를 필두로 가까운 시일 내에 우권 발행의 소싸움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권 발행은 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능할 수 있는데, 이 법으로 인해 동물보호법 개정 당시 소싸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본법 제7조 2항 3호)로 정해져 동물학대행위로부터 제외됐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민속경기'(시행규칙 제9조 3항)에 해당한다.

소싸움

소싸움을 정당화하는 논리 중 하나는 소싸움이 잔인하지 않으며 따라서 동물학대가 아니라고 말하는 점이다. 그러나 경기장으로 들어오는 대개의 소들은 소리를 내며 포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며 그것은 초식동물이며 타고난 성격이 온순한 소들로서는 결코 자연스러운 음이 아니었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경기장에 들어선 소들은 쉽게 싸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소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훈련사로 추정되는)이 옆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들을 흥분시키기도 하는데, 이런 자극에 따라 서로 오랜 시간 싸우는 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몇 분 안에 경기가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싸움의 기술이나 방식을 개발하고 재미를 이끌어내는 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뿔을 겨누다 도망가는 소가 지는 것으로 결판

이 나게 돼 있어 이 경기를 지켜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기가 재미없다는 반응도 있었다. 이것은 추후 소싸움 경기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더욱 가혹한 경기 방식 채택이 염려되는 부분이 된다.

몸을 이용해 힘을 겨루는 싸움이다보니 경기가 오래 지속되면 다치는 경우들도 종종 눈에 띄는데, 단시간 내에 소가 도망가면 부상은 동반하지 않겠으나 30분 이상, 1시간 이상을 싸우거나 목격할 바에 의하면 2시간 가까이 싸우는 소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 소의 머리엔 선혈이 낭자해 극심한 고통을 동반한다고 볼 수 있다. 싸움이 끝난 후 싸움에 패한 소가 소리를 지르거나 경기장에서 안정되지 못한 행동을 보이는 경향을 발견하기도 하였는데, 대체적으로 패배한 소에게서 나타난 현상으로 볼 때 소들이 싸움에 상당한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은 약물반응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과 싸움을 진행하는 측에서는 우리 한우의 전종을 이어간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참전한 소들이 모두 한우라고 보기엔 어려운 점들이며, 싸움소들이 특별식으로 보신탕, 개소주나 뱀을 먹인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인데 이런 경우 싸움소의 수명이 다했을 때 도살의 운명에 처해진다는 것 역시공공연한 사실이어서 이 소가 다시 인간의 식용으로 쓰이는데 어떤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을지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우권발행 도박 조장, 지역사회의 불건전성

청도 소싸움장은 '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우권을 발행해 싸움소에 배팅을 해 돈을 배당받는 게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상설경기장이 마련된 것이다. 이는 2002년 8월에 제정된 '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당시 청도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의 발의로 제정된 것인데 사행심을 조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청도 지역으로 제한했다. 그러자 진주 등의 지역에서 소싸움 원조 지역론을 들고 나오며 강력한 이익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에 맞서서 진주는 향후 우권발행 지역으로 승인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상설 경기장을 만들어 소싸움을 지역 축제화 하는 등 우권 발행 유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마 등으로 인한 도박 등이 극성을 이루는 한국 사회는 도박의 폐해가 너무 커 국무총리실 소속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두고 도박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본격적으로 우권이 발행되며 소싸움이 진행하게 되면 도박의 폐해는 더욱 커질 것이며 소에게는 더욱 더 가혹한 경기 방식이 요구되어질 것이 염려된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소싸움 경기의 최대 다수의 관람자들은 인근 지역의 노령층이었다. 때문에 이 청도 소싸움은 지역 사회의 노령층마저도 도박 중독에 빠지게 할 위험성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이는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저해요소가 될 것이라는 것을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침차 동물에 대한 윤리적 관점이 중요시되는 현대사회에서 소싸움 경기는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염려해 소싸움은 지역의 축제가 아닌 사회의 어두운 이면이라는 점을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



두려운 동물들의 역습

오윤원 | 시새 N-문화과학팀장

로렌스 앤서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줄루란드에서 야생 코끼리를 돌보는 환경 보호 전문가다. 어느 날 그는 CNN을 통해 이라크 전쟁 뉴스를 보다가 바그다드의 동물원이 위기에 처했음을 알게 된다. 그 길로 곧장 바그다드로 날아간 그는 바그다드 동물원에서 눈 먼 갈색 곰 새디아와 미군이 자살 폭공대로 오인해 사살하려던 타조, 후세인의 아들 우다이가 키우던 사자 등을 구한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앤서니가 동물을 포기 못한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지구상의 어떤 생명체도 목숨이 귀하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이 지구상에 앤서니 같은 휴머니스트만 있다면 동물들의 복지는 크게 향상되리라. 그러나 세상은 정반대이다. 앤서니 같은 이는 멸종 위기의 코뿔소 수만큼이나 극소수다. 그의 이야기가 책《바그다드 동물원 구하기》으로, 다큐멘터리로 소개되는 것도 그의 행위가 워낙 유별나기 때문이다. 실제 인간과 동물 간의 역사를 돌아보면, 온통 피비린내 나는 비극으로 점철되어 있다.

1900년대 초 호주 남쪽 테즈메니아 섬에 '주머니늑대'라는 독특한 동물이 살았다. 얼굴과 이빨은 틀림없는 늑대였다. 그러나 외모나 생태는 우리가 아는 늑대와 사뭇 달랐다. 일단 턱뼈가 뱀처럼 2단계로 열려 먹이를 통째로 삼켰다. 등에는 호랑이처럼 12~20줄 줄무늬까지 있었다. 또 평소에는 네 발로 달리다가 때로는 뒷발로만 쾅충쾅충 점프도 했다. 가장 특이한 점은 캥거루처럼 배에 새끼 주머니가 있었다는 점이다.

1만1000년 전 원주민이 그린 바위그림에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주머니늑대의 생존 역사는 꽤 오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주머니늑대는 1933년 절멸한다. 바로 인간이라는 외래 침입자 탓이었다. 19세기말, 인간들은 테즈메니아 섬으로 이주하면서 양을 데리고 온다. 그런

때 때때로 이 양떼를 야생 들개들이 습격했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식량과 재산(양)을 지켜야 했다. 20세기 초 인간은 총으로, 밧으로, 약으로 주머니늑대를 사냥하기 시작한다. 심지어 정부는 1888년에 현상금까지 내건다. 그 결과 1914~1926년에 2268마리의 주머니늑대가 살해된다. 여기에 인간이 기르는 개들이 전염병(디스탤버)을 퍼트리면서 주머니늑대 수는 급격히 줄어든다. 그리고 마침내 1933년 동물원에 남아 있던 최후의 한 마리까지 사망하면서 주머니늑대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된다.

인간의 탐욕으로 사라진 동물이 어디 주머니늑대 뿐인가. 인도 갠지스 강 주위에 한 번 보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새들이 살았다. 분홍머리오리였다. 긴 목은 장밋빛이고, 몸체는 짙은 갈색이고, 하늘

로 날아오를 때 보이는 날개 밑은 선명한 핑크진주빛이었다. 문제는 인도를 점령한 영국인들이 이 아름다운 새의 수집을 간절히 바랐다는 점이다. 1910년대 들어 분홍머리 오리 수렵은 극에 달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새도 1942년에 멸종되고 만다.

입으로 새끼를 낳는 이브섬은쇠술개구리(호주 남동부 지역에 서식)는 인간이 만든 댐 때문에 절멸하고(1983년),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에 살았던 초원뇌조는 인간의 식탐과 그들이 옮긴 전염병으로 세상에서 사라졌다(1932년). 이 외에도 웃은올빼미, 카리브 몽크물범, 라나이하와이지빠귀, 도도새, 황금두꺼비, 사막취갱거루 등 수천 종의 희귀 동물들이 지난 백여 년 간 사라졌다. 물론 동물의 멸종 뒤에는 언제나 무분별한 개발 욕망과 무자비한 식탐을 가진 인간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지금도 1000여 종의 동물 종이 절멸 위기에 놓인 것으로 진단한다.

인간의 개발과 탐욕은 동물들의 멸종만 부르는 것이 아니다.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요즘 전 세계를 공포와 혼란에 빠트리고 있는 인플루엔자 A(신종 독감)도 따지고 보면, 인간이 동물에게 저지른 '악행'에 대한 역습일지 모른다. 인플루엔자는 본래 물새나 철새들이 보유한 바이러스 질병이었다. 그런데 조류들이 호숫가나 강가 등지에서 육상 동물들과 접촉하며 그 바이러스를 감염시켰다(육상 동물들 또한 자신이 보유한 바이러스를 조류들에게 감염시켰다).

하지만 동물들 간의 접촉에서는 걱정할 만한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저 열이 조금 오르거나, 가벼운 감기를 앓는 정도로 지나갔다. 문제는 인간이 공장 을 짓고, 길을 넓히고, 댐을 지으면서 나타났다. 그 과정에서 인간이 그간 접촉 하지 않았던 조류나 육상 동물들과 접촉하면서 자연스럽게 바이러스 '순환'이 일어난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이러스가 인간과 동물 사이를 오가면서 돌연변이와 재조합을 통해서 더 무시무시한 놈으로 거듭났다는 점이다. 몇 년 전 인간을 괴롭힌 조류독감과 사스 그리고 최근 멕시코에서 발생한 신종 독감이 다 그 같은 바이러스 순환의 산물이다. 어쩌면, 1918~1919년에 3000만~1억 명의 목숨을 앗아간 스페인독감도 그 같은 과정을 거쳤는지 모른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에이즈와 살모넬라균이 일으키는 식중독, 그리고 사시사철 인간의 주위를 맴도는 수많은 전염병도 다르지 않다. 인간이 열대림을 베어내고, 물길을 막고, 급증하는 인구를 먹여 살리려 야생 동물들(원숭이, 침팬지, 악어 등등)을 사냥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질병이다.

그래서 일부 생태 전문가들은 "이미 바이러스와 동물들의 역습이 시작됐다"라고 말한다. 과연, 동물들의 역습은 시작된 것일까. 그리고 인간들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경고처럼 바이러스의 역습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위기의 순간을 맞을까(WHO는 바이러스 관련 전염병이 대유행하면 인류의 3분의 1이 감염될 것으로 예측한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동물과 인간의 갈등이 커가지만,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인간이 이 지구의 주인인 양 왕인 양 행세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만약, 이대로 동물의 멸종이 계속되어 내가 무진장 좋아하는 하마나 기린마저 사라진다면 세상은 정말 팍팍한 것 같다. ㉠

수천 종의
희귀 동물들이
지난 백여 년 간
사라졌다.
물론 동물의 멸종
뒤에는 언제나
무분별한
개발 욕망과
무자비한 식탐을
가진 인간이
있었다.

INTERVIEW

“동물보호법 개정 위해 단체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강은엽 카라(KARA) 명예대표

이 정 애 | 취재 · 정리

우리가 전 추계예술대 부학장이자 카라(KARA, 전 아
름뽀) 명예대표인 강은엽 교수님을 뵙기 위해 찾은 늦
은 오전에도 강 교수는 다른 날과 다름없이 매우 바
쁜 모습이었다. 특히 그날은 주인이 마냥 묶어두고 기
르던 피레니즈 '장군'이 문제로 어수선하기까지 했다.
영문을 몰라 엉거주춤 서 있는 우리에게 강 교수는
'장군'이 얘기를 풀어놓기 시작한 건 교수님 댁에 도

착한 지 30여 분이 지나서였다.

장군은 교수님 댁 근처에 사는 5개월 남짓 된 강아
지다. 워낙 사람을 잘 따라 길을 잃은 적이 있던 걸
강 교수가 주인에게 찾아주기도 했었다. 현대 정착
장군이 주인은 전혀 돌봐주지 않아, 이를 안타깝게 여
겨 다른 데로 입양을 보내자고 강 교수는 제안을 했
다. 하지만 지난밤에 흔쾌히 허락했던 주인이 다음날

아침 마음이 바뀌었다며 입양을 보내지 않겠다고 한 것. 교수님은 오랜 시간 주인을 설득하고자 했으나 주인의 뜻은 완고했다. 경기도 의왕시 청계산 자락에 자리 잡은 강 교수님의 집은 그가 키우는 강아지들 소리로 아침을 시작한다. “오늘도 평소처럼 8시30분 정도에 동네 한 바퀴를 돌아요. 한 시간여 동네 강아지들에게 먹이와 물을 주죠.”

강 교수님은 10여 년간 변함없이 이 일을 해오고 있다. 눈 또는 비가 내려도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단 하루도 거른 적이 없다. 다만 특별히 일이 있을 경우엔 집 근처 동호회원에게 부탁한다. 누릉지를 입양한 것을 인연으로 ‘누렁이 살리기’ 회원들도 자주 그의 일을 돕거나 집을 찾는다. 워낙 동물을 좋아했던 강 교수님은 15년 전부터 유기동물에 관심을 가졌었다. 이들을 한 마리 한 마리 입양해 기르게 된 것이 현재 12마리다. 강 교수에게 12마리 모두 소중한 애듯한 강아지들이지만 ‘누렁이 살리기’에서 만난 누릉지는 특히 마음이 더 가는 유기견이다. 언뜻 보기에도 몸이 많이 불편해 보이던 누릉지는 벌써 열세 살이다. 비록 다리를 절룩이며 천천히 계단을 걸어 오르지만 결코 흐트러지지 않은 기품 있는 자태를 선보이던 누릉지.(취재 후 누릉지는 교수님 곁을 떠났다)

최근 강 교수님의 블로그(<http://blog.naver.com/eunyupkang.do>)를 찾았더니 누릉지가 많이 아파서 가슴이 아린단다. 교수님의 블로그에선 그가 아픈 누릉지와 강아지들을 위해 집 구석구석에 만들어 놓은 구조물들을 엿볼 수 있다. 그냥 돌보기만 하는 것에서 끝나 는 게 아니라 동물들의 편의를 일일이 배려한 모습들까지 엿볼 수 있다.

동물단체 활동에 비해 성과 미흡해

강 교수님은 동물보호단체 카라(Korea Animal Rights Advocates) 대표를 맡아왔다. 2002년에 설립된 ‘아름품’은 올바른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연구 및 제안, 다양한 개 식용 반대 캠페인, 실험동물 반대, 농장동물의 복지 증진, 기타 채식문화 운동 등을 전개했다. 그러다 2006년 카라로 이름을 바꾸고 더 구체적인 동물권익 활동을 펼쳤다. 카라의 대표직을 맡아오면서 그가 느낀 게 한 가지 있다. 5000여 명이 넘는 회원이 적극적으로 자원봉사를 해왔지만, 회원 대부분이 직장인이다 보니 활동에 시간적 제약이 따르고 협회 활동에 비해 성과가 낮았다는 것이다.

요즘 단체보다 개인 블로그 활동에 더 열중하고 있다는 강 교수님은 동물 보호단체에 몇 가지 바라는 점이 있다고 한다. 먼저 동물보호법 개정에 있어서 모든 단체가 힘을 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동물 보호 및 권익을 위해 기본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선 생각해야 하며 동물보호 단체는 수익 사업에 결코 관여해서는 안 된다. 최근 시행되는 동물 명예감시관제를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동물보호단체가 적극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 정부나 시, 지자체에서 직접 동물보호법 시행을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강 교수님이 특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동물 안락사 문제인데, 예전엔 유기동물을 동물보호소에서 30일 정도 보호하다 안락사 시켰다. 그러다 얼마 전 보호기간은 10일로 짧아졌다. 그는 이 문제를 안타까워한다. 되도록 유기동물들을 잘 보호하고 반려동물을 바라는 가정으로 입양되기를 바란다. ☺





‘세계 무역과 농장동물복지’ 컨퍼런스 참가기

Conference on Global Trade and Farm Animal Welfare

조희경 | 대표

1월 20~21일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세계 무역과 농장동물복지’를 주제로 컨퍼런스가 개최돼 참가하고 왔습니다. 이 컨퍼런스는 European Commission과 동물보호단체인 RSPCA(The 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WSPA(World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EuroGroup for animals, CIWF(Compassion in World Farming)가 함께 조직한 컨퍼런스로서 농장동물의 복지 향상과 국제 무역에 동물복지 정책들이 반영되는 것을 기대하며 개최된 국제 회의입니다.

여기에는 세계 각국의 NGO 활동가를 비롯해 동물복지 학자, 산업계, OIE, 세계은행 등의 관계자와 EU는 물론이고 미국, 브라질, 호주, 노르웨이의 정부 관계자(농림부, 식품안전국) 등에서 발표자로 나섰고 60여 개국에서 온 400여 명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주요 발표 내용은 동물복지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와 정책 등이 발표되고 동물복지의 기준 정립과 제안, 무역

에서의 동물복지 적용, 동물복지 법률 개정, 소비자들과 산업계가 관행축산을 중단하기 위한 협력, 동물복지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은 동물복지가 동물만을 위한 것이 아닌 식품 안전과 환경적 측면에서 생산업체나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함을 제공한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한 과학적 자료와 조사가 중요하다고 논의됐습니다.

또한 그동안 동물들에게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관행적인 축산 방식(예를 들어 닭의 배터리 케이지 사육, 암탉지의 스톤 사육, 밀집 사육 등)을 중단시키고 동물복지형 축산을 구축하기 위한 제안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실행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한편으로 이해되는 것이 서로의 정보 공유와 방향성 제시, 시행의 문제점 등은 내놓을 수 있어도 각 나라마다 주어진 여건 등의

이해관계가 예민한 상황에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일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렇듯 컨퍼런스에서 좋은 내용만 오간 건 아닙니다. 늘 이곳에서도 재차 느낄 수 있었던 '국가 간에 잠재된 갈등'이었습니다. 유럽연합(EU) 측에서의 동물복지의 쟁점 중 하나는 경쟁력 염려입니다. 축산업의 국제 상황에 비교해 볼 때 동물복지는 EU가 앞서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EU축산계로서는 동물복지로 인한 높은 생산비가 비인도적인 축산의 낮은 생산비와 비교해 볼 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쟁점이 될 경우 불리하다는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동물복지단체와 EU로선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될 것이며, 동물복지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는 EU의 이유 있는 노력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두고 혹자들은 서구의 제국주의적 관점에서 동물복지를 접근하려 한다는 의견을 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EU가 전 세계적으로 동물복지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저개발국가의 축산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단적인 면만 본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물복지는 철저한 인간 이익 중심 자국 산업 중심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타종(他種)에 대한 이해와 배려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비록 동물을 인간이 먹고 이용하는 존재로 인정할지라도 인간에게 동물을 윤리적으로 대우해줘야 하는 책무가 있다는 주장과 정책이 과연 자국 이기주의로 성립될 수 있을까요?

동물도 인간과 같이 고통을 느끼고 그것을 피하려 하는 지각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럴 거라는 주장이 아니라 과학적인 입증이 가능한 것입니다. 가혹한 상태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인지 능력을 가진 생명체(동물)를 사육하고 죽이는 행위에 아무 윤리적 고민 없이 약속강식의 논리만 존재 한다면 인간 사회에서 강자가 약자를 범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윤리성도 흔들리게 될 것이며 사회 윤리에 대해 심각한 고찰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각 나라의 여건과 현실도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 조율

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분명한 점은 지향점을 가지고 실행에 옮겨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각각의 어려운 점은 있을 것이며 극복해야 할 문제는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안주하거나 좌절되면 사회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이 컨퍼런스에서도 잠재된 갈등들은 느낄 수 있었지만 그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극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참석자 대다수는 동물복지는 방어의 태도를 취할 문제가 아니라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에는 인식을 같이 하며 향후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와 축산계도 이러한 점을 적극 수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제적 관계(도덕적, 산업적)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부와 산업계만 변화해야 하는가? 아닙니다. 저도 동물 활동가로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동물복지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가 변화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와 같은 많은 고민을 다시금 하게 됐는데 이러한 계기를 통해 우리 단체가 한국 사회에서 동물복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견고하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



▲ 미국 휴메인소사이어티 농산물유통부대표 비미언씨와 함께

■ 청소년문화관 해부실습 교실 강의

과학은 결과에 따라 인류에게 미칠 영향으로 인해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해부실습은 어린이들에게 단순 호기심 충족에 지나지 않으며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파괴시킬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경우 영생 재료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물유연면대에서는 서술 시내의 청소년 문화관에 설치하여 동물들의 해부실습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청소년 문화관에 철회 요청을 해 살아있는 생물체는 실험재료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마트에서 식품으로 손질된 재료들을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니다.

[illegible]

■ 낙농 육우협회 '송아지 박사 퍼포먼스' 철회 운동



지난해 12월 한국곡농육우업협회는 사료 값 폭등 및 송아지 값 폭락에 대한 정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하며 이때 송아지를 거러 받아 사육할 기회를 발표했습니다. 농장에서만 사육돼는 동물들 집회에 동참한 것은 이들을 낳는 환경에 반하는 것이며 현장에서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이들은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즉각적으로 회원들의 힘을 모아 퍼포먼스 저지를 촉구했으며 그 결과 전담노조회를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송아지를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 '세계 무역과 농장동물복지' 컨퍼런스 참가



1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세계 무역과 농장동물복지' 컨퍼런스가 개최됐는데, 이 컨퍼런스에는 세계 60여 개국에서 NGO 활동가와 정부 관계자, 교수, 축산 업계 등 여러 분야 사람들이 참가했습니다. 농장 동물 복지와 관련한 각종 이슈와 연구들이 발표됐고, 동물복지를 농업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의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지만 장기적인 과정에서 곡축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전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 정기총회 개최

2월 20일 동물자유연대 회의실에서 2009년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2008년 한 해 동안의 재정 및 사업 보고와 올해의 사업 및 예산안 보고가 있었고, 정관도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많은 회원들이 모여 동물자유연대의 여러 캠페인 및 사업에 대한 토론이 오가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 성동구 어린이 동물보호 교육

2006년부터 어린이 동물보호 교육을 실시해온 동물자유연대에서는 4~5월 성동구청과 함께 성동구 관내 43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어린이 반려동물보호교실'을 열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반려견을 키울 때 책임감 및 주의사항, 반려견에게 필요한 물건 및 위험한 물건 알아보기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어렸을 때의 교육이나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앞으로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동물과 모든 생명체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가재뽑기기계 반대 운동

살아있는 가재뽑기 게임기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물보호법 상 보호 대상인 동물이 척추동물에 한정돼 있어 가재뽑기 게임기는 동물보호법 위반 고발 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8조 3항과 시행령 16조 2에 근거해 가재뽑기 게임기는 모두 불법이므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동물자유연대에서는 이 게임기가 불법임을 알리고 신고를 바라는 게시물을 올림과 함께 농림부에 동물보호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으며 싸이월드 등을 통해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 바둑기 유해조수지정 반대 운동

3월 환경부는 야생 동·식물보호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집바둑기를 유해 야생동물로 규정해 효율적 관리 명목으로 지자체에 사실상의 포획 허가를 내어주는 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비인도적 포획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이 다른 여러 나라에서 알려지고 있으며, 바둑기 개체수 조절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생태학적 인도적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동물자유연대는 환경부의 바둑기 유해 야생동물 지정에 반대하는 온라인 항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혜원 | 선임간사

동물자유연대 사무실 식구들이 경기도 가평의 애견 펜션으로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을 마당에 풀어놓고 잠시 쉬다가 저녁식사 전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지고 나니 어느새 9시가 훌쩍 넘어서야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 메뉴인 야채 바비큐에 약간의 해물을 첨가해봤습니다. 버섯, 고구마, 파프리카, 단호박 등 갖가지 야채들이 어우러져 어찌나 맛있었는지... 바비큐 그릇에 구운 고구마는 완전 '짱'이었습니다. 콩 소시지도 준비했는데 이게 구워서 먹으니 별미더라고요. 장을 보면서 '다 먹을 순 있을까?' 생각했던 것은 괜한 기우였고, 삼시간에 재료들이 동나서 아쉽게 접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도 야외에 나가 한번쯤 고기 대신 야채 바비큐를 드셔보세요. 가격도 저렴하고 특별히 준비할 것이 없으면서 고기와는 또 다른 별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

재료

단호박, 파프리카, 고구마, 버섯 등 입맛에 맞는 각종 야채와 콩으로 만든 소시지 등을 손질해서 미리 준비해 두세요.





2. 본홍이의 밧날

행당동의 모든 사료는 내끼엔 우적우적 무진장 먹더니 무저런 배가 바닥에 붙어 버렸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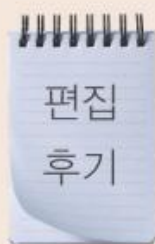


5. 진기명기

서서 동색기의 진수를 보여 주시는 봉군~
서비스로 동색기 전에 밥귀도 봐주시는
엄티형 봉군이랍니다.



♥ 성장이 약하신 분들을 위해
화려한 그래픽 지원을 했습니다.



'함께 나누는 삶' 이 발행 된지도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몇 번 이 책을 내면서 과연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가 충실하게 전달되었는지 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 지 궁금하군요. 이 책을 읽는 분들 중에는 동물복지에 관해서 많이 알고 익숙한 분들도 계시지만, 이 분야에 대해 생소한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나누는 삶' 은 이 분들 모두 쉽게 읽으실 수 있으면서도 깊이 있는 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부터 많은 공부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주저 없이 알려주세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작은 생각 하나가 동물복지를 알리는데 큰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2008년 겨울 호가 발행되지 못하고 이번 봄 호도 너무 늦게 발행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직은 제 역량이 많이 부족해서 여러분과의 약속을 자주 깨트리네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고 공부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후원해 주세요

동물들은 이 지구상에서 인간과 함께 공존하며 자연의 어우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들은 인간 삶의 질에 다양한 형태로 기여하기도 하고, 많은 수의 동물들이 인간을 위해, 인간에 의해 희생되기도 합니다. 정서가 매우 온화한 현대 사회에서는 인생의 동반자로, 인간의 식생활과 생활용품, 오락, 의학, 과학 개발의 현장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수많은 곳에서 동물들이 이용되는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이 이용되는 과정에서 동물에게는 극심한 고통이 수반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때론 인류에 대한 공헌으로 합리화되기도 하지만, 그 고통을 줄이려는 노력에는 무관심했던 것은 아닌지, 인간은 동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책임의 의무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이 생명으로서 대우받지 못하는 사회, 고통을 호소하며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지길 원하는 동물들의 절규, 끝 간데 없는 동물 이용. 우리는 동물의 고통에 무관심한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 모였습니다. 생명에 대한 자비심이 충만한 가치 사회를 구현해나가는 일, 여러분들의 동참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부당한 착우와 고통 가운데에 있으면서도, 말하지 못하고 대항하지 못하는 동물들을 위해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동물자유연대 · (사)한국동물복지협회의 후원인이 되어 주십시오.

후원 방법

- 이 면을 작성하여 절취하신 후 팩스로 보내주시거나, 홈페이지 <http://animals.or.kr>로 접속하셔서 정회원에 가입하시면 후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전화 02-2292-6337, 팩스번호 02-2292-6339 (전송 후 확인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사항을 작성해 주세요.



이 름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휴대폰 _____

주 소 _____ 전 화 (집/회사) _____

자동이체계좌번호 _____ 은행명 _____ 예금주 _____

* 예금주와 후원인이 동일인이 아닐 경우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기재 _____

후원금액 _____ 자동이체 날짜 _____ 5일 ☐ 14일 ☐ 23일 ☐ (확인 요망)

* 우리단체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08 연례보고

동물자유연대 ·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협회

2008년 한 해에도 변함없이 동물자유연대를 지원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008년은 처음 제정된 후 약 16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발효로 시작된 의미있는 한 해였습니다. 1999년 PC통신망을 기반으로 의기투합한 자원활동자들이 모여 자발적인 학대동물구조와 유기동물 입양활동 조직을 구성해 활동하면서 시작된 동물자유연대는 후원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정성에 힘입어 이제 창립 10주년을 바라보는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한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동물보호단체로서의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국민들의 생명존중 의식을 바탕으로 동물들이 기초적으로 누려야 할 자유가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며 동물에게 고통과 불편함을 가하는 인간의 생활방식과 산업 관행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비전에 따라 반려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동물오락, 법률 및 정책, 교육 등 동물복지의 주요 이슈를 포괄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월별 주요 활동 ◎

▷ 1월

· 동물보호법 상 애견판매업 규제조항 알리기 캠페인

서울시내 중심가인 명동과 성남 모란시장에서 애완동물 판매상 및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애견판매업 규제조항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 동물보호법 홍보 플래쉬 애니메이션 제작/배포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내용을 소개하는 플래쉬 애니메이션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플래쉬 애니메이션은 CD로 제작되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공식적으로 발효되는 1월 27일을 가하여 각 지자체, 교육 기관 등에 배포되었습니다.

· 반려동물복지포럼 개최

〈동물보호법이 개시함에 미치는 영향과 개시음 반대 캠페인 발전을 위한 모색〉을 주제로 한 반려동물복지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포럼 개최 소식은 2008.1.16일자 연합뉴스를 통해서도 보도되었습니다.

▷ 2월

· 동물보호법에 의거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추천 실시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추천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4조에 따라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실험의 당위성을 평가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이 윤리위원회에는 동물보호단체의 추천을 받은 외부위원이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3월

· 서울시 개고기 판매업소 위생점검 계획 반대 캠페인

서울시가 개고기 판매업소의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개고기를 법에 따라 관리하는 '식품'으로 관리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을 발표하였

습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서울시의 개식문화계획 철회를 주장하며 3월 27일부터 시청앞 1인 시위, 싸이월드 클럽을 통한 서명운동을 식히하였고, 이 캠페인은 5월까지 2달간 지속되었습니다.

▷ 4월

· 동물보호매거진 〈함께 나누는 삶〉 창간

서울시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에 통과하여, 동물보호 계간지 〈함께 나누는 삶〉을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계간 〈함께 나누는 삶〉은 정규기부회원을 대상으로 무료발송하며 그 외 서울시내 주요 동물병원에 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배포량은 앞으로 계속 넓혀갈 계획입니다.

· 지구의 날 행사 참여

2008년에도 변함없이 매년 정기적으로 참여해온 지구의 날 공식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행사 부스에서는 오늘날의 가족산업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사진매널 전시가 진행되었고, 동시에 서울시의 개고기 합법화 계획 저지를 겨냥한 캠페인(서울시장에게 전달하는 시민들의 서명받기, 기습시위 등)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 5월

· 세계동물보호협회 - 동물자유연대 모금 전략 교육 협의

여러 이슈에 걸쳐 동물자유연대를 지원하고 있는 세계동물보호협회(WSPA)의 펀드레이징팀 매니저가 동물자유연대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펀드레이징 및 전략교육 지원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 입양동물과의 만남 행사 개최

정규 입양동물의 날 행사를 성금리에 미루려하였습니다. 우리 단체로부터 반려동물을 입양한 가정이 참여해주셨습니다.

▷ 7월

· 개도살 반대 캠페인 웹사이트 '다름노' 개설

식용견 사육 및 개도살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위한 웹사이트 '다름노'를 개설하였습니다. 웹사이트는 개사육 및 도살 현장의 진화성을 알리는 사

진과 동영상, 반려동물로서 개의 특성을 강조하는 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도 웹사이트를 통하여 2008년 2월 28일까지 개도살 반대를 지지하는 4,045명의 서명을 수집하였습니다.

· 연구보고서 <한국의 개고기에 대한 고찰 / 개고기 산업 실태 조사 보고서> 발간

지난 2년간 진행되어온 식용개 사육 농장 및 개도살 및 유통 실태의 조사 결과를 담은 연구보고서 <한국의 개고기에 대한 고찰 및 개고기 산업 실태 조사>가 발간되었습니다. 보고서는 궁극적으로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도살을 금지시키기 위한 지지층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정부 관계자 및 동물과 관련된 연구기관, 사회 문화계 인사들에게 1차 배포되었습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2009년 리뉴얼된 다른도 웹사이트를 통하여 소개될 예정입니다.

· 개고기거래 및 식용 목적의 개도살에 반대하는 지하철혈 순회 캠페인

지난 2006년부터 3년째 서울시내 주요 지하철혈을 순회하는 개고기 금지 촉구 캠페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7~8월 2일간 8개 지하철혈 역에서 개도살 반대를 주제로 한 동영상 상영과 함께 부채를 배포하는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중목과 말목에 준비한 퍼포먼스 캠페인은 YTN 뉴스채널을 통하여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 동물실험과 관련하여 연구, 의료 기관의 양심적 윤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인형 퍼포먼스 캠페인

· 과학수사연구소의 동물충실실험 철회 캠페인

▷ 8월

· 패션매거진 Vogue의 별책부록 사진집 Fashion pet 제작 참여

유명 패션 매거진 Vogue 8월호 별책부록으로 제작된 사진집 <Fashion pet>에 동물자유연대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들의 사진이 소개되었습니다. 또한 Vogue지에서 주최한 오프라인 사진전과 바자회를 통한 수익금 일부가 동물자유연대에 기탁되었습니다.

· 광주시 백구상해치사 기소 캠페인

광주시 모 교회에서 백구 도살 제보를 받고, 이 사건이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명백한 동물학대로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인 광주 북부 경찰서에 민원내기 캠페인을 시행하였습니다. 이것은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통하여 강화된 동물학대 처벌 내용을 일선의 법집행 기관 및 대중들에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개를 도살한 당사자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처벌을 받았습니다. (뉴스시 2008.09.05 보도)

· 아시아농장동물복지연합 정기 워크숍 참여

아시아에서 농장동물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WSPA 회원 단체의 연합인 ACFA의 주요 멤버로서 ACFA 정기 워크숍에 참여하였습니다. 각 단체의 프로젝트 수행 보고와 함께 국제적 연대 캠페인을 통한 아시아의 농장동물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대 활동을 목적으로 한 기초 작업이 논의되었습니다.

▷ 9월

· 2차 모란시장 애견판매 금지 캠페인

모란시장 내 애완동물 판매상인들을 겨냥한 동물보호법 내 불법애견판매금지 조항 알리기 캠페인을 지난 1월에 이어 2차로 실시하였습니다.

· 서울 구로구청과 연계, 어린이반려동물보호교육 실시

서울시 구로구청의 의뢰로 구로구청 내 45개 유치원에 반려동물돌보기 동을 주제로 한 어린이 반려동물보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10월

· 농림부 주최 동물보호 사랑 축제 참여

2008년 처음으로 열린 동물보호사랑축제에 참여하였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행사 부스를 통하여 올바른 반려동물 돌보기 리플렛과 스티커를 배포하고, 버려진 동물의 슬픔과 유기동물방지를 위한 이름표 부착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인형극을 공연하였습니다.

· 동물보호정책 세미나 개최(농림수산식품부 공동)

동물보호사랑축제의 부대행사로써 동물보호정책 세미나를 주관하였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과 향후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 전반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반려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등 주요 이슈별 동물보호법 관련 조항을 점검해 보고자 하는 기회로 마련되었습니다. 건국대학교 이상목 교수를 토론 좌장으로 모시고 진행된 본 세미나에는 우리 단체 조희경 대표를 비롯하여 농림수산식품부 김문갑 차관, 진주산업대학교 김두환 교수, 강원대학교 이인재 교수, 동물학대방지연합 한창아 대표가 주제발표연사로 참석해주셨습니다.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개정안 중 예방적 살처분의 대상 확대하는 조항에 반대 캠페인

농림수산식품부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개정안 중 개, 고양이 등 포유류 동물을 포함하는 조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12월 개정 확정된 고시에서는 개, 고양이 등의 포유류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11월

· 안성보호소 시설보수비 후원을 위한 동물보호 달력 판매

우리 단체의 구조 동물을 일부 보호하고 있는 안성보호소의 시설보수비 지원을 위한 동물보호 달력 판매가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로 초탄 제작 분량 500부가 매진되었고, 판매금이 안성보호소에 전달되었습니다.

▷ 12월

· 청소년 교육기관의 무분별한 동물해부 실습 철회 캠페인

거울방학을 맞이하여 일부 청소년 교육기관에서 동물 해부가 포함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는 제보가 우리 단체에 접수되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 해부를 포함한 교육이 예정된 기관을 파악하여 접촉하였고, 4개 기관에서 해부 실습 프로그램을 철회하겠다는 응답을 확인받았습니다.

· 제주시 들불축제 말싸움 계획 저지 캠페인

제주시에서 기획하고 있는 들불축제 말싸움을 저지하기 위한 인터넷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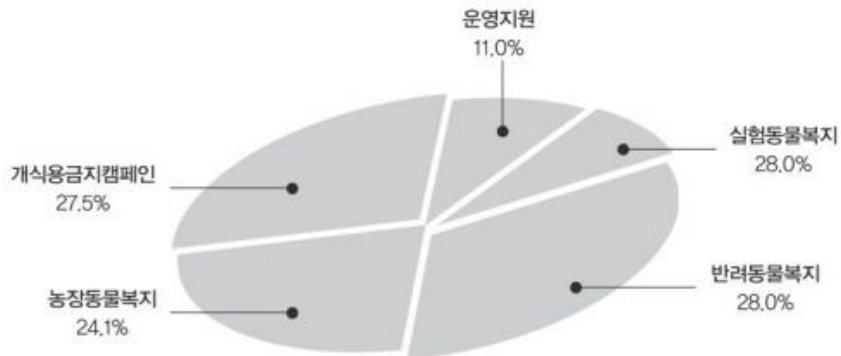
· 낙농육우협회 송아지 방사 퍼포먼스 계획 저지 캠페인

◎ 2008 결산내역 ◎

계정과목	금 액	
1) 수입액		221,784,594
1. 후원금수입	117,777,121	
2. 사업지정 기부금	104,007,473	
2) 지출액		225,154,209
1. 급여	115,559,100	
2. 퇴직급여적립금	9,000,000	
3. 연구활동조사비	24,663,053	
4. 행사 및 캠페인	18,735,053	
5. 반려동물복지비	13,355,250	
6. 시설비	10,915,700	
7. 복리후생비	4,163,158	
8. 접대비	1,439,060	
9. 세금과 공과	4,456,910	
10. 차량유지비	2,058,700	
11. 여비교통비	671,000	
12. 정부정책사업자부담금	1,751,330	
13. 수도광열비	1,886,690	
14. 보험료	1,171,570	
15. 통신비	4,067,810	
16. 소모품비	6,408,968	
17. 지급수수료	4,797,630	
18. 도서인쇄비	52,740	
19. 잡비		
3) 순이익		-3,369,615
4) 기타수익		852,118
1. 이자수익	752,118	
2. 잡이익	100,000	
5) 2008년 총이익		-2,517,497

6) 특별사업(정부정책사업)		0
1. 수입액(정부지원금)	29,291,420	
2. 지출액(사업비비지출)	29,291,420	

단위 : 원



◎ 연중 진행 활동 ◎

· 유기동물 및 학대받는 동물 상담

2008년 웹사이트 개편을 통하여 제보/상담 게시판 개설하여 이를 통한 1:1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유기동물 및 학대받는 동물 보호 및 입양

주택가에 위치한 사무실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해당동 사무실에서 보호되고 있는 동물은 연중 25~30마리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만 23마리가 새로 입소하였고, 기존 보호동물을 포함하여 20마리가 새로운 입양 가정에 정착하였습니다.

· 동물복지실태 조사

- 지난해에 이어 개고기 거래 시장 및 도살 현장에 대한 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농장동물 캠페인의 일환으로 돼지와 산란계 사육 농장 및 도살장, 그리고 복지 친화적 농장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 정책 자문 활동

- 소싸움에 대한 법률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 이 부분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포함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소싸움 경기에 지역 제한을 두는 조항을 동물보호법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는 고시 개정 제안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반려동물복지정책 자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2007년도 체결된 협약에 따라 (주)풍우원/울가 농장동물복지기준 자문이 2008년에도 계속 되었습니다.
- 기타 지자체 요청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유기동물관리 위탁업체 심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현황 ◎

· 멤버 현황 (2009년 4월 10일 기준)

- 정기후원자 : 440명
- 온라인참여회원 : 2,111명
- 싸이월드 일촌 : 22,500명
- 해피로그 이웃 : 200명

· 상근 활동가 현황(2009년 4월 기준)

- 조희경 상임대표
- 전략기획팀 _ 전경옥팀장
- 홍보팀 _ 박연주팀장
- 농장동물팀 _ 최윤석간사
- 반려동물팀 _ 윤정임선임간사, 최계순
- 실험동물팀 및 캠페인 지원 _ 이지영간사
- 운영지원팀 _ 손혜원선임간사



안녕하세요.
마고애미입니다.

햇살 포근한 봄봄봄 ~ ♪
봄이 왔어요.
제가 가장 러블리한
계절입니다.



힘들게 새싹하나 나운거 언동에 꿀맛한게!
봄채녀 마고애미는
일년내내
봄이였으면 좋겠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몫을 빼앗아 동물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닌,
소외된 약자에 대한 본배의 자비심입니다.

함께
나누는 **삼**

발행처 동물자유연대 · (사)한국동물복지협회 서울 성동구 행당동 307-18 T 02-2292-6337 F 02-2292-6339
발행인 조희경 발행일 2009년 5월 30일 편집 진 행 손해원 교정 교열 이정애 일러스트 이은영
계간지 / 2009. 봄호 등록번호 성동바 00004 www.animals.or.kr 디자인 · 제작 동방기획(02-2277-0365)